

浮屠

鄭永鎬

一、新羅石造浮屠의 意義와 典型

浮屠는 浮圖、浮頭、蒲圖、佛圖 등 여러가지로 表記되고 있는데 원래는 佛陀와 같고 Buddha를 번역한 것이라 하고 또는 窣堵婆(Stupa) 즉 塔婆의 轉音으로서 이도 浮屠라고 한다는 것이다. ① 결국 語源으로 보자면 佛陀가 곧 浮屠임으로 의형적으로 나타나 佛像이나 佛塔이 즉 浮屠이며 다시 나아가 僧侶들까지도 「浮圖」로서 일컫게 되는 예가 있었으니 이렇게 보면 실로 넓은 의미의 浮屠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를 따지면 이렇듯 광범위한 내용을 가진 것이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浮屠라 하면 一聯의 墓塔을 가르는 것이 사실이므로 浮屠란 말이 실제에 있어서 매우 局限된 用語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浮屠는 三國期新羅의 圓光法師와 惠宿師의 浮屠로서 기록에 보이는 바 三國遺事 卷第四 圓光西學條에, 年八十餘 卒於貞觀間 浮圖在三岐山金谷寺(今安康之西南洞也 亦明活之西也)

라 하여 唐 貞觀年間(六二七~六四九)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 三國遺事 卷第四 二惠同塵에,

今安康縣之北 有寺名惠宿 乃其所居云 亦有浮圖焉

이라 있어 寺名과 浮圖의 존재를 알렸는데 惠宿의 生寂年時는 不明하나 同學과의 관계에서 보면 貞觀年間の 入寂으로 추정하여 浮屠도 같은 연

대일 것이다. 그리고 百濟에 있어서도 惠現의 浮屠로서 三國遺事 卷第五 惠現求靜條에,

道俗敬之藏于石塔 俗齡五十八 卽貞觀之初

라 보이므로 역시 貞觀年間の 일인데 여기의 石塔이란 곧 惠現의 墓塔을 말한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보면 圓光이나 惠宿、惠現등의 浮屠란 모두 文獻上에서의 존재인데 그 시기는 貞觀年間으로 일치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貞觀代를 우리나라 浮屠 造營의 始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당시 中國에 있어서도 이미 이러한 墓塔의 經營이 있어 그 實例로 唐나라의 草堂寺 鳩摩羅什舍利塔을 들 수 있겠다. ②

그리하여 당시 唐나라와의 관계로 보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墓塔經營의 추정은 당연한 일인 것인데 다만 오늘에 이르러 실물을 대하지 못하여 實證을 할 수 없으니 결국은 우리나라 浮屠의 起源을 貞觀年代라 함도 文獻上으로서의 일일 뿐이다.

이후 憲德王 五年(八一三)에 建立하였다는 斷俗寺 神行神師碑에 ③, 是以招名匠 畫神影 造浮圖 存舍利

라 하여 浮屠의 存在를 알리고 있으나 현재 남아있지 않고 이후 實物을 볼 수 있는 浮屠로는 文聖王 六年(八四四)에 建造된 廉居和尚塔으로서 이 浮屠가 가장 오래된 遺品이다.

즉 우리나라에 있어서 浮屠의 건조가 三國期末부터 있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文獻上의 일이요 실물을 보았던 것은 九세기 중엽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오래된 예로서 廉居和尚塔을 들었으니 이 遺品이야말로 우리나라 石造浮屠樣式의 系統을 세움에 있어 그 起點을 이룬다고 하겠다.

이 浮屠는 八角形을 기본으로 하여 下臺石、中臺石、上臺石 등의 基壇部는 물론이고 이 위에 놓이는 塔身피임대, 塔身部, 屋蓋石, 相輪部材까지 모두 八角으로 造成되어 층층이 쌓인 것으로 전체적인 平面이 八角인데 이러한 형식의 부도를 이른바 八角圓堂型이라 일컫고 있으며 이후 新羅

대에 건립된 石造浮屠는 모두 이러한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니 우리나라 石造浮屠의 典型은 곧 八角圓堂型이라 하겠고 그 定立은 역시 九세기 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二、八角圓堂型浮屠

오늘날 전하는 新羅時代의 八角圓堂型石造浮屠는 모두 禪門九山을 비롯 禪門道場에 건립되어 있다. 이것은 九世紀 이후 禪宗의 유행으로 각 禪門에서는 각기 師資相承하므로써 禪風을 크게 일으켰으며 각 山門에는 그 法門의 開山祖師와 開山人의 순서로 뚜렷한 一宗派의 系譜가 이루어져서 각 禪門의 弟子들은 그들의 祖師를 崇奉하여 평시에 그가 說法한 내용이나 교훈을 語錄으로 남기고 入寂후에는 先師를 追仰함에 있어 후세에 기리 보존될 造形的인 藏骨處를 造成하려고 한데서 그 禪刹에 石造浮屠를 건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까지 八角圓堂型의 新羅石造浮屠로 알려져 있는 것은 十三基인데 여기에 完形은 아니나 그의 塔碑가 있어 主人公과 建造年代를 알 수 있는 新羅浮屠二基를 합하면 十五基가 된다. 그리하여 이들을 대략 年代順으로 놓아 各部의 樣式과 手法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陳田寺址浮屠 江原道 襄陽郡 降峴面 屯田里所在, 寶物 第四三九號, 높이 三·一七m, 統一新羅(九세기 중반).

이 浮屠는 基壇部와 塔身部로 이루어졌는데 신라시대 一般型石塔의 通式인 方形二層基壇위에 仰蓮괴임 一石을 놓고 八角塔身石과 屋蓋石을 쌓은 異例의 樣式이다. 六枚의 長大石으로 地臺를 구성하고 그 上面에는 圓弧와 角形一段씩의 괴임을 彫出하여 기단부를 받고 있다. 하층기단은 面石과 臺石이 同一石으로서 四枚石으로 이루어졌는데 各面에는 兩隅柱와 中央一撐柱가 정연하다. 四枚石으로 결구된 하층기단갑석 상면에는 원호와 각형 一段씩의 괴임을 마련하여 상층기단을 받고 있는데

상층기단면석 각면에 양쪽 우주와 중앙 一橫주가 각출되었음은 하층기단면석과 같다. 갑석은 二매석으로 형성되었는데 하면에 부연이 마련되었고 상면에는 八각으로 四분원의 물딩과 낮은 각형의 返轉形 괴임을 조출하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높은 각형 괴임을 각출하여 도합 三단으로서 연화 괴임석 一매를 받고 있다.

이 연화대석은 단엽 十六판의 양연좌인데 각 연판 내에는 원형의 子房 주변에 五엽의 화판이 조식되고 있어 더욱 화사한 연화좌를 이루고 있다. 이 대석은 하면은 八각이 뚜렷치 않으나 측면부터는 완전한 八각이어서 八변과 八각에 각기 一판씩의 양연을 조각하여 도합 十六판인 것이다. 상면에는 낮은 각형 一단위에 높은 四분원의 물딩과 각형 一단을 마련하여 八각 탑신을 받고 있는데 그 상면 중앙에는 방향의 사리공이 있어 주목된다. 이 사리공의 조사는 一九六八年 四월말의 부원공사 때 이루어진 것인데 사리공의 형태는 정방형은 아니나(二六·五cm × 二九cm, 깊이 九·五cm) 口緣은 뚜렷한 방형으로서 주연에 폭 一cm, 깊이 〇·五cm의 홈이 음각되었고 底面은 내곡되었다. 연화대석 자체가 厚肉하지 못하므로 사리공도 깊지는 않으나 폭은 넓은 편이라 하겠다.

연화좌를 별석으로 조성하여 안치한 것은 이 사리공을 시설하기 위한 것이었는 바 석조 부도에서 이러한 장치를 시설한 類例는 아직까지 조사된바 없는 것으로서 이 부도의 異例의 形態는 물론이요 사리장치법에도 특수한 형식을 보이고 있음에서 더욱 이 석조 부도가 귀중하게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八角塔身石에는 銘文이나 彫飾, 隅柱 등의 표현이 全無하며 남측 一면에만 문비와 같이 篆額을 마련하였을 뿐이다. 이 전액은 二층으로 음각되어 사방 額彫二條만이 뚜렷할 뿐 그 내면에는 문고리나 자물쇠등 아무런 조각도 없다.

八각 옥개석 하면 추녀에는 깊고 넓직한 낙수홈이 음각되었고 그 내면에 각형 一단 괴임이 각출되어 탑신석 위에 놓여졌다. 낙수면이 평박

하고 八각마다의 전각의 받친도 경쾌하여 전형적인 신라식의 옥개석이
라 하겠다. 옥개석 頂面에는 상륜부를 받기 위하여 八각으로 一단의 각
형 피침을 각출하였고 그 주연에는 複葉 八판의 伏蓮이 조식되었으며
중앙에는 一擦柱가 있어 보주석을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 찰주는 방형의
철제로서(현고 九·五 cm, 一변장二 cm) 현재 직경八 cm의 원공내에 장회
로 고착되어 있다.

寶珠는 一석의 연봉형으로 원형인데 하면 중앙에는 직경六·五 cm
이 九·五 cm의 찰주 원공이 시공되었고 하단 측면에는 단엽 八판의 양
면이 둘러져서 옥개석 상면의 복련과 잘 어울려 더욱 장엄하다. 부도
바로 앞에는 一석으로 조성된 배례석이 놓여 있는데 측면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으나 상면 중앙에 단엽 八판의 연화좌가 장식되었다.

이 석조부도의 건립은 각부양식이나 풍려한 연판 조각으로 보아 통일
신라 시대인바 신라시대의 일반형 부도의 양식을 따르고 있지 않은 점
은 주목되는 것으로 이 부도의 조성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중요한 문제
가 될 것이다.

즉 기단부의 구조가 신라시대의 일반형 석탑과 같이 方形 二층임은
당시 이미 진전사 境內에 三층 석탑이 건립되어 있어서 그 양식을 따랐
던 것이며 상·하층 양쪽 우주와 중앙 一행우까지도 모각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기단부 각부재의 결구방법도 동일한 것이다.

탑신과 옥개석에 있어서는 신라시대의 전형적 양식인 八角圓堂型으로
구성하였으며 舍利藏法은 일반형 석탑의 格式을 따라 기단부 위에 봉안
하였으니 여기의 八각연화좌는 마치 초층 옥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이라 하겠다. 즉 일반형 석탑에서의 사리봉안과 비교했을 때 우선
이곳 진전사지 3층석탑만 보더라도 초층옥신에 사리공을 시공하고 있으
니 부도의 경우이 연화좌는 사리를 봉안하기 위한 別石의 시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등을 종합해 볼때 건립연대는 9세기 중엽으로 추정
된다.

廉居和尚塔 서울特別市 景福宮內所在、國寶第一〇四號、높이 一、

七 m 統一新羅(文聖王六年、八四四)

진전시대 廉居和尚塔은 一九一四년경에 서울의 파고다공원내에 옮겨
다는 것이다. 현재는 이 부도가 경복궁내에 옮겨져 있으나 경복궁으로
옮길때는 파고다 공원에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파고다 공원으
로 옮길때의 원위치가 어디냐는 것은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다. 즉 일
본 사람들이 「塔洞公園內에 옮겨졌다」고만 하였고 이후 원위치를 강원도
原城郡 地正面 安昌里 興法寺址라고 기록하여서 오늘에까지 그렇게 전
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일이다. 興法寺址에서 서울로 옮겨
온 것은 고려초의 浮屠인 眞空大師塔인데 수차의 현지조사에서 원위치
까지도 확인하였고 洞里의 옛 노인들로부터 옮겨질 당시의 상황도 자세
히 들은바 있다. 그러나 廉居和尚塔의 옮겨진 사실을 현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 부도가 서 있던 자리도 없으므로 일본인들이 廉居和
尚塔의 원위치를 興法寺址라고 말했던 것은 근거가 전혀 없는 조각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興法寺 廉居和尚塔」이라는 명칭은 일본 사람들이 임
의로 지어 놓은 것이며 이것을 八·一五광복후에도 우리가 그대로 사용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근년에 이르러 興法寺址로부터 옮겨진 일의 의심스
럽다는 이유로 「傳」자를 앞에 붙여서 우선 모순된 일을 면해 보자는 것
이었다. 그러나 현지 조사에서 분명히 일본인들의 조각이라는 것이 밝
혀진 이상 「興法寺」를 구태여 넣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이 浮屠를 가장 오래된 遺例로 보았을때 이를 하나의 거점으로 하여
우리나라 부도의 양식을 고찰해야 할 것이다. 이 후에 진전된 石造浮屠
는 대부분이 역시 廉居和尚塔의 형식을 따라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하
였고 다만 조형의 세부나 조각수법에 있어서 다소의 시대적인 차이를
보일 뿐으로 기본형태에 있어서는 거의가 다 이 부도와 같은 八角圓堂
型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 부도의 구조는 全部材의 平面이 八角으로서 基壇部위에 塔身을 놓
고 그위에 屋蓋石을 얹었으며 頂上에 相輪部를 형성한 형태이다. 현재

一매의 板石으로 조성된 方形地臺石위에 건립되어 있으나 이 지대석은 後補物이어서 본래의 것은 알 수 없다.

기단부는 상·중·하대석으로 구성되었으며 下臺石의 각 측면에는 一 座석의 獅子像을 양각하여 도합 八座인데 이들은 모두 動的인 자세로서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사자상이외에는 각면에 兩隅柱나 眼象 등의 조식이 없으며 상면에 中臺石을 받든 三단의 角形과임을 똑같은 높이와 형식으로 刻出하였다.

中臺石은 낮은 편으로 각면에 신라시대 通式의 眼象을 음각하고 그 내면에는 각기 葦과 香爐, 花紋 등을 조각하였는데 특히 葦은 蓮座와 寶蓋, 寶珠, 花紋 등의 장식으로 화사하다.

上臺石은 下面에 八角으로 三단의 各형반침을 刻出하였는데 이것은 下臺石 상면에 마련한 中臺石과임대와 대칭을 이루고 있다. 側面은 圓形을 이루었고 여기에는 單葉의 仰蓮을 二重으로 조각하였는데 상·하列에 十六瓣씩이고 蓮瓣내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으며 형태는 풍려한 편이다. 상면에는 周緣을 따라 圓形으로 낮은 角形과임을 一단 돌리고 그 중앙에 八角으로 圓弧와 角形의 二단과임을 조출하여 八각의 塔心과임을 받고 있다.

塔心과임석은 別石으로 조성하여 끼운 것인데 각 측면에 通式의 眼象을 一區씩 음각하고 그 내면에 연화좌위에 앉아있는 天部像을 一軀씩 조각하였다. 측면 상단은 甲石形을 이루었으나 附椽 등의 반침단은 없고 상면에는 八각으로 圓弧와 角形의 二단과임을 마련하여 八각 塔心을 받고 있다.

탑신은 부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이른바 목조건축의 八角堂을 그대로 석조화한 것이며 그러기에 이 윗부분에서는 木造架構의 形式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각면에 兩隅柱를 세우고 전·후면에는 門扉形을 모각하여 내면에 자물통과 문고리 두개를 양각하였으며 상부에는 양쪽에 굴곡이 있는 弧形內를 花紋으로 장식하였다. 門扉 양쪽에는 각기 四天王立像을 배치하였는데 양각한 레리—프가 강하며 각像의

표현은 圓形頭光과 武器, 甲冑, 頭像 등이 매우 寫實的이라 하였다. 四天王像 조각의 面을 제외한 다른 側面에 兩隅柱 아래로 下枋을 돌리고 상부에 引枋과 平昌枋을 건너지르고 있음은 목조건물의 壁面을 연상시킨다.

屋蓋石은 탑신위에 놓이는 下面부분에 얇은 一단의 角形반침을 조출하고 弧形을 이룬 처마 부분에는 飛天像을 조각하였는데 全面이 아니고 一面씩 건너 四面에만 배치하였다. 그리고 추녀에 이르는 下面에는 角形의 椽木을 모각하였다. 옥개상면은 八면의 합각에 굽은 隅棟形을 표시하고 落水面에는 기와골을 조각하였으며 그 끝은 막새기와의 모양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隅棟끝에는 圓刻한 雜像을 배치하였으니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추녀는 거의 水平으로 隅角에 이르러 약간 곡선을 보이는 데 각 轉角에는 별다른 조식이 없다. 이와 같이 옥개석에 있어서의 椽木과 기와골, 암막새기와形, 隅棟形의 모각과 잠상과 배치 등은 목조건축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는 양식이라 하겠다.

옥개석 頂面에는 八각으로 높직한 一단의 各형과임을 마련하여 相輪部를 받게 되었으나 현재는 相輪部材가 하나도 놓여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七〇년전 이 부도를 현위치로 옮기기 이전에 촬영한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을 보면 옥개석 정상에 相輪部材가 三石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覆鉢 一石과 寶輪 二石인데 覆鉢은 거의 球形으로 下端에 單葉의 仰蓮이 조식되고 중간에는 圓座花紋과 二條의 橫帶를 돌려 표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寶輪 二石은 같은 형태로써 八隅角에 귀꽃을 조각하였다. 이들은 현재 모두 행방을 알 수 없으나 이후 건립된 다른 석조부도들의 相輪考察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도에는 金銅製 塔誌가 달려 있는 바 건조년대를 신라 文聖王六年(八四四)경으로 추정하게 되는 것도 이 塔誌에 의함이다. 塔誌는 부도를 원위치에서 옮길 때 이 부도속에서 발견되었다.

大安寺寂忍禪師照輪淸淨塔

全南 谷城郡 竹谷面 元達里所在, 寶物

第二七三號、높이 三·一m、統一新羅(景文王元年、八六一)。

이곳 大安寺의 開山祖師인 慧徹의 浮屠로서 현재가 原位置인데 寺刹 중심을 약간 벗어난 北쪽 언덕에 건립되어 있다.

이 浮屠는 기단부부터 옥개석과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八角을 固守하고 있어 「八角圓堂型」이라는 신라 석조부도의 전형형을 잘 나타내고 있다. 地臺石은 方形의 二단으로 구성되었고 각 부재와 똑같이 세련된 治石을 보이며 별다른 조식은 없다.

基壇部는 상·중·하대석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八각이고 別石으로 조성하였다. 하대석은 각면에 二區씩의 細長한 眼象을 음각하였는데 그 線刻이 매우 예리하여 시대적인 특징을 잘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대석은 현저하게 上促下寬의 형태이므로 측면에서 보면 사다리꼴이며 측면에는 각一座석의 獅子像을 양각하였는데 이 사자들은 모두 그 방향이 다르고 頭像과 전·후 양다리의 형태도 달리하고 있으며 특히 머리카락과 뒷꼬리가 울려져 流麗한 곡선을 보이고 있으므로 움직이고 있는 사자의 조각임을 알 수 있다.

하대석위에 중대를 받는 괴임대가 마련되었는바 형태는 八각이며 높직한 角形 一단이 있는 위에 낮은 角形의 三단괴임을 각출되었다. 중대석은 八각의 각면마다 조식이 있는 細長한 眼象을 一區씩 두었으며 높이가 매우 낮은데 이러한 현상은 先例에서도 같음을 볼 수 있다.

상대석은 하면에 낮은 角形받침 三단을 八각으로 각출하여 그 밑의 중대석 괴임 三단과 대칭을 보이며 상면에도 角形이 三단괴임을 각출하고 그 위의 부재를 받고 있다. 上臺 측면에는 單葉의 仰蓮을 三重으로 조각하였는바 下端에 一列의 양련이 있고 그 위에는 二葉이 중첩되어 있어 三重이며 이 蓮瓣內는 縱線이 중심에 양각되었을뿐 별다른 장식 없이 周緣과 瓣端部의 표현이 寫實的이라 하겠다.

탑신괴임대는 기단상대석과 同一石이며 상면에 각출한 三단의 角形 괴임 위에 마련되었는데 각 측면에 조식이 있는 細長한 眼象을 二區씩 배치하였다.

탑신석은 각면에 兩隅柱를 각출하고 전·후면에 門扉形을 모각하였으며 그 좌·우 측면에는 四天王像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은 넓은 편이며 하면에는 角形椽木形이 二重으로 조각되어 있어 목조건축의 양식을 모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렇듯 木造架構를 구현하고 있음은 상면과 추녀끝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즉 屋上의 낙수면에는 八面の 合角에 굵은 隅棟이 있고 그 사이에 기와골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추녀는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각 隅角에 이르러서는 약간 급하게 反轉되었으며 추녀에는 막새기와로서 기와골의 막음을 취하였는데 여기에는 암막새와 수막새의 윤곽을 조각하여 목조건물의 막새기와를 연상할만큼 寫實的으로 표현하였다.

相輪部는 옥개석 정상에 二단의 角形괴임을 각출하여 받고 있는데 寶珠까지 완전히 남아있다. 즉 仰花위에 覆鉢과 寶輪、寶珠등이 차례로 남아있는데 대개의 석조부도에서는 相輪部材까지 남아 있는 경우가 매우 적은 편이어서 이렇듯 많은 部材가 完形을 보이고 있는 것은 드문 遺例로 또한 주목된다. 仰花도 八각으로 하면에는 一단의 各形받침이 각출되었고 각 隅角에 一瓣씩 배치한 立狀形 仰蓮에는 瓣內에 圓帶와 連珠紋을 비롯하여 각종 花紋이 조식되었다. 覆鉢은 일반형 석탑에서와 같이 圓形이며 측면에 橫帶가 둘러져 있고 三층의 원형 보륜에는 각기 측면에 八瓣의 仰蓮이 조각되었는바 각 연판내에는 珠紋과 각종 花紋을 장식하였다. 寶珠는 정상의 寶輪위에 놓직한 圓臺를 마련하고 그 상면에 낮게 조각하였다. 이와같이 相輪은 하단부의 仰花부터 정상의 寶珠까지 많은 花紋을 조식하고 있으므로 下部基壇의 화사한 장식들과 잘 어울려서 전체적으로 보아 莊嚴을 크게 유의한 석조부도라 하겠다.

이 부도의 옆에는 塔碑가 서 있으므로 禪師의 행적을 비롯하여 당시의 寺刹、建塔、建碑등 여러 관계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碑文에 의하면 이 부도의 건립년대는 신라 景文王 元年(八六一)으로 추정된다.

雙峰寺澈鑿禪師塔 全南和順郡梨陽面甌里所在、國寶第五七號、높

이二·三m, 統一新羅(景文王 八年, 八六八)。

이 浮屠는 신라 석조부도의 通式인 八角圓堂型을 이루어 基壇部위에 塔身과 屋蓋石이 놓여졌으며 옥개상면에는 圓形의 擦柱孔만이 남아있고 相輪部는 없어졌다. 그리고 각부의 石材는 花崗岩으로 下臺石 一매, 中臺와 上臺石이 同一石, 탑신과 옥개석이 각 一매씩 모두 四매석으로 구성되었다.

기단부는 상·중·하대석으로 형성되었고 지대석은 현재 「시멘트」로 補強하였으나 八각으로 축출되며 下臺下端部에 下臺石과 同一石으로 된 八角의 角形 二단과 圓形의 낮은 각형피임으로 下臺를 받고 있다.

下臺石은 상·하 二단으로 이루어졌고 하단은 원형의 평면을 보이며 측면에 卷雲紋을 가득히 조각하였는데 특히 상단부에서는 圓刻에 가깝게 조각되었다. 雲紋사이에는 雙龍이 조각되어 정면에서 두마리의 龍頭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발로 如意寶珠를 왼쪽에서 받치고 있으므로 하단 주위에는 구름 사이로 꿈틀거리는 龍의 모양을 보여 주고 있다. 하단의 상면에는 八각의 낮은 각형피임을 각출하고 그 위에 八각의 상단을 마련하였다. 상단은 八귀통이에 蓮葉으로 날개형의 기둥을 세워 각 면마다 眼象形을 이루고 그 안에 獅子를 一座씩 양각하였는데 八면의 獅子형태는 앞다리를 들고도 있고 구부리고 앉아 있기도 하여 각기 변화있는 모양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머리도 위를 향하였거나 아래를 향하였거나 하여 여러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얼얼한 모든 正面을 향하고 있음이 흥미롭다.

下臺石 상면에는 높직한 八각의 中臺石 피임대가 있는데 內曲된 圓弧形으로 한단을 돌리고 그 위에 높은 弧形의 받침을 마련하고 그 위를 음각하여 中臺石下面이 끼이도록 하였다.

中臺石은 八각으로 下端은 「홈」에 끼이도록 內曲된 圓弧를 이루고 있으며 中臺下部에 높은 피임 한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다시 낮은 피임대를 조출하여 中臺石을 조성하였다. 중대 측면에는 八귀통이에 상·하로 날개모양으로 펼쳐진 蓮葉으로써 기둥을 세워 각 면에 眼象形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앙에는 얼얼이 매우 큰 迦陵伽를 조식하였다. 중대석 상단에는 八각의 낮은 角形 三단 받침을 각출하여 上臺石을 받고 있다.

上臺石은 蓮華臺와 八각의 높은 塔身피임대로 이루어졌으며 연화대는 圓形으로 측면에 十六葉의 仰蓮을 조각하였는데 연판의 중앙에는 화려한 花紋을 장식하고 있다. 그 연화대 상면에는 瓣端을 따라 낮은 角形 一단의 피임이 있고 다시 그 안쪽으로는 八각의 角形피임 一단을 각출하여 탑신피임대를 받고 있다.

탑신피임대의 八귀통이에는 「床다리」 모양의 童子柱를 圓刻하고 그 안에 眼象을 一區씩 깊게 음각하였으며 眼象內에는 아기를 연주하는 迦陵伽를 一座씩 양각하였는데 그 형태는 모두 다르다. 피임대 상단은 甲石形을 이루고 있는데 이 측면과 「床다리」 모양의 童子柱 표면에는 각기 橫과 縱으로 短線紋이 음각되었다. 상면에는 탑신을 받기 위하여 八각으로 弧形과 角形의 二단 피임을 조출하였는데 弧形에는 一瓣에 七瓣씩의 伏蓮을 조식하였다.

八각탑신의 八귀통이에는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배출린의 수법이 완연한데 기둥위에는 柱頭가 표현되어 있고 圓柱 사이에 橫枋이 가로 놓여있으며 橫枋중앙에는 역시 「접시받침」이 놓여있다. 탑신은 전·후면에 門扉形이 조각되어 框額內에 자물통이 조각되었고 다른 四면에는 四天王立像이, 나머지 二면에는 供養飛天像 二座씩이 각각 圓刻에 가깝도록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 또한 八각으로 낙수면이 평박하며 각 隅棟이 굽지하고도 流麗하게 흘러 내렸고 기와골이 표시되었다. 그리고 기와골 끝에는 암막새와 수막새의 막새기와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수막새기와에는 실제 건물 의 瓦當처럼 八葉의 蓮華紋을 조식하여 寫實的인 그 彫飾意匠에 주목을 끌게 한다. 옥개頂面에는 二단의 角形피임을 각출하여 相輪部를 받도록 되었는데 현재 相輪部材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피임대 중심에 圓形 擦柱孔이 있을 뿐이다. 옥개석 하면에는 비군데에 飛天像이, 두군데에 香爐가, 나머지 두군데에 花紋이 조식되었으며 椽木과 附椽이 표시

되어 있다.

雙峰寺 현지에서 보면 禪師의 墓塔 바로 옆에 塔碑가 세워졌던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현재 碑身이 없고 또 古記에도 碑銘이 하나도 전해지는 것이 없어서 塔이나 塔碑의 정확한 건립년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관계기록에 의하여 禪師가 입적한 신라 景文王 八年(八六八)을 부도의 건립년대로 추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寶林寺普照禪師影聖塔

全南 長興郡 有治面 鳳德里所在, 寶物第一 五七號, 높이 四·一 m, 統一新羅(憲康王 六年, 八八〇).

이곳 寶林寺의 開山人인 普照禪師의 浮屠로 높직한 八角地臺石 上面에 주변을 따라 매우 얇은 角形一段의 碑陰을 刻出하고 그 위에 세웠다. 基壇部는 상·중·하대석으로 구성되었고 하대석은 상·하 二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대석의 형태는 상·하단 八각인 것이 확실하나 현재는 파손이 심하여 그 윤곽이 분명하지 않은데 나머지 몇근대의 측면을 보면 하단은 각면에 眼象이 있고 상단에는 獅子像을 조각한 흔적이 남아 있다.

하대석 위에는 中臺를 받기 위한 碑陰석을 別造하여 끼워 놓았으며 그 형태는 圓形인데 측면에 卷雲紋을 圓刻에 가깝게 寫實적으로 조각하였다. 碑陰석 상면에는 八각으로 낮은 一단의 角形과 높직한 角形 二단의 碑陰단을 조출하여 中臺石을 받고 있는데 측면의 雲紋이 反轉되듯 立體的으로 上緣까지 올라 덮고 있어서 이 三단의 角形 碑陰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一見하여 확인하기가 어렵다.

中臺石은 八角인데 배가 약간 부른 형태로서 이른바 배흘림을 표현하고 있다. 각 면에는 상·하단부에 대칭으로 二條의 橫帶를 돌리고 각 횡대사이에 隅角에 一座씩, 그리고 그 중간에 一座씩의 花紋을 細刻하여 장식하였다. 각 면에는 상·하에 括弧形이 있고 좌·우에도 중앙에 一단의 輪郭을 둔 方形에 가까운 특이한 형식의 眼象을 평행선으로 二重이 되게 음각하였다.

상대석은 別石으로 조성한 八각 蓮華臺인데 측면의 仰蓮臺와 상단의

八각 甲石形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하면에는 八각의 上臺石 상면에 맞게 놓이도록 八각으로 二단의 角形 받침을 조출하였다. 仰蓮은 單葉 一瓣씩을 자 모서리에 조각하였는바 이 瓣內에는 周緣을 따라 또 하나의 蓮葉形을 음각하고 그 내면을 고사리紋과 曲線紋 등으로 장식하고 있다.

탑신 碑陰대는 別石으로 높직하게 조성하여 끼웠으며 八각을 이루었다. 각 측면에는 眼象 등의 조각이 전혀 없으며 중간에 橫으로 一條의 細線을 양각하고 상·하단은 낮게 甲石形을 돌리고 있다. 탑신석은 유난히 廣大하여 上臺石에는 위압감마저 느끼게 한다. 八각의 각 면에는 兩隅柱가 조각되고 특히 상단부는 柱頭가 조각되어서 木造架構를 구현한 일면을 보이고 있다. 탑신 八면에는 전·후면에 門扉形을 조각하고 그 좌·우면에는 四天王像을 조각하였는데 탑신석의 각 조각에서 先例의 석조부도들과 달리 주목되는 점을 몇가지 볼 수 있다. 즉 門扉形에 있어서 門鑰形, 그 밑에 雙環이 각각 조각되었는바 여기에는 鬼面을 양각하여 특이하게 보이고 문고리도 글썽이 있는 고리로 표현하여 장식적임을 알 수 있으며 전·후의 四天王像에 있어서도 甲冑가 화려하다. 그러나 門扉形위에 花紋을 조각한 것이라든가 門扉의 윤곽등 전체적인 구성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우개석은 둔중함으로 후시 後補物이 아니냐는 의문마저 갖게 하는데 石質에 있어서는 탑신이나 기단부와 같다. 우개도 물론 八각형으로 하면에 椽木形을 조각하고 있는데 塔身石에 놓이는 부분에 八각으로 二단의 角形 받침을 조출하고 치마부분에는 굵은 卷雲紋을 조각하였다. 상면에는 八면의 合角에 隅棟이 굵직하게 조각되었고 그 사이의 낙수면에 기와골이 표현되었다. 추녀는 수평이나 매우 重厚하고 막새기와의 표시도 전혀 없다. 각 隅角에서는 反轉을 보이고 있으며 隅棟끝에 三山形의 귀꽃이 조각되었다. 우개정상에 二단의 角形 碑陰을 각출하여 相輪을 받고 있다.

相輪部는 현재 완형이 아니나 覆鉢과 寶輪 寶珠 등이 차례로 놓여있

다. 북받음은 圓形이며 측면에는 八隅를 표시하기 위한 花紋이 조식되고 이들을 연결하는 橫帶가 둘러졌다. 그리고 이 위에 竹節形의 竿柱가 세워지고 그 중간마다에 寶輪이 놓였는데 각 측면에는 굵은 卷雲紋을 장식하였다. 寶珠는 작은 仰蓮臺위에 큼직하게 조각하였는 바 연봉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부도의 앞쪽에는 塔碑가 남아 있어서 그 주인공 및 그의 行蹟, 당시의 寺刹, 대외관계등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는 碑文에 의하여 이 부도의 건조년대를 憲康王 六年(八八〇)경으로 추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 慶北 聞慶郡 加恩面 院北里所在、寶物第一

三七號, 높이 三·四一m, 統一新羅(憲康王 九年, 八八三)。

이곳 鳳巖寺를 開創한 智證大師의 浮屠로 寺刹中心에서 西北쪽의 한적한 곳에 塔碑와 나란히 東편에서 있다.

新羅典型인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한 부도로서 여러장의 板石으로 짜여진 方形地臺石위에 건립되어 있다. 지대석은 높직하며 상면을 평평히 다듬고 그 중앙에 八角형의 괴임대를 마련하였는데 밑에는 낮은 角形을, 그 위에는 높직한 圓弧와 낮은 角形을 조출하여 기단부를 받고 있다.

基壇은 상·중·하대로 구성되었으며 下臺石은 단 한 번인데 하대석 각 측면에는 通式의 眼象을 一區씩 음각하고 그 안에 獅子像을 一座씩 양각하였는데 獅子들은 方向과 四肢의 형상을 자기 달리하고 있어서 動的임을 알 수 있다. 下臺石은 두툽한 甲石形을 이루었고 그 상면에 앞은 角形괴임을, 단 각출하여 八角의 中臺石괴임대石을 받고 있다.

中臺괴임石 하단은 全面에 雄大한 雲紋이 둘러졌고 그 위에 上段石을 놓았다. 上段괴임대는 下臺石의 形式과 같이 八角의 측면과 上端의 甲石形으로 이루어졌는데 측면의 각隅角에 卷雲紋이 조각된 圓柱形을 세웠으며 각 면에는 모두 날개를 활짝 편 迦陵頻伽를 一座씩 양각하였다. 中臺石은 八면에 똑같은 양식의 眼象을 음각하고 그 내면에 각종 조각

을 배치하였는데 眼象의 형태는 비모를 꼭선으로 표시하고 상·하를 열었으며 좌·우의 상·중·하에는 卷雲紋과도 같은 圓座紋을 조식한 方形이다. 각 眼象內의 조각은 正面에는 卓上 蓮座위에 舍利盒을 안치하고 그 위를 寶蓋, 寶珠, 嬰珞 등으로 장식하였으며 다른 七面에는 蓮華座위에서 무릎을 꿇고 供養하는 合掌供養像이나 혹은 琵琶나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奏樂像을 一座씩 조각하였다.

上臺石은 하면에 높고 낮은 角形받침 三단을 각출하였고 측면에는 單葉의 仰蓮을 돌렸으며 각 瓣內는 子房이 있는 花紋으로 장식하였다.

塔身石괴임대 또한 기단부의 괴임대 형식을 따라 측면과 상면으로 구분되는데 측면에는 隅角마다 圓形의 圓刻短柱를 세우고 그 위에 架木의 형태를 표현하였으며 短柱와 短柱 사이의 각면을 깊숙히 파서 일체감을 돋우고 있다.

塔身石은 각 면에 兩隅柱가 각출되고 全面에 조각이 있는데 전·후면에 門扉形을 조각하여 자물통을 표시하였고 門扉의 좌·우에는 각각 四天王像을 배치하였으며 나머지 두 측면에는 菩薩立像을 양각 배치하였다.

우개석은 탐신이나 기단부 각 부재에 비하여 매우 廣大하며 현재 많은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하면은 탐신석에 놓이는 부분에 一단의 角形받침이 조출되고 처마부분에는 꼭선을 그리는 큼직한 받침을 나타내면서 그 全面에 雲紋과도 같은 형태의 紋樣을 조식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추너부분에 이르기까지의 넓직한 처마에 조각된 서까래는 角形 二重椽으로 되어 있다. 우개석 상면은 八면의 合角에 굵직한 隅棟을 표시하였고 낙수면에는 기와골이 없이 평평한데 이렇듯 기와골이 조각되지 않은 낙수면은 先例에서는 없었다. 八隅의 轉角에는 좁고 높직한 三山形의 귀꽃을 조각하였다.

우개석 정상에는 別石으로 조성한 蓮華臺石을 놓아 相輪部를 받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相輪部材는 露盤과 覆鉢 寶珠등인데 露盤은 八角이고 그 이상은 圓形이다.

이 浮屠의 바로 옆에는 塔碑가 건립되어 있어서 주인공과 그의 行蹟, 그리고 이 석조부도의 여러 관계 내용을 알 수 있는바 이 碑文에 의하여 이 부도의 건립년대는 신라 憲康王 九年(八八三)으로 추정되고 있다.

寶相寺證覺大師凝寥塔

全北 南原郡 山內面 立石里所在, 寶物第三 八號, 높이 三 m, 統一新羅(八六一~八九三).

寶相寺의 開山祖師인 證覺大師의 浮屠로 極樂殿 東편에 자리잡고 있는데 현재가 原位置이다.

一枚의 板石으로 조성된 方形 地臺石위에 浮屠를 세웠는데 차례로 佛 基壇部 塔身 屋蓋石 相輪部材가 모두 八각이어서 신라 석조부도의 典型인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단부는 상·중·하대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대석은 二단으로 조성하였다. 하단은 全面에 雲紋을 양각하였고 상단은 上면에 八각으로 一단의 角形과 임을 각출하여 그 위의 부재를 받고 있을 뿐 측면이나 上면에 아무런 조식이 없다.

하대석 上단 위에 놓인 中대석과 임석은 별도의 一石으로 높직하게 조성되었는데 각 측면에는 상·하단에 甲石形을 모각하고 좌·우角에 隅柱를 각출하였으며 그 중앙에는 撐柱를 一柱씩 세우고 있다. 上면은 上椽부터 圓弧를 그리면서 넓은 間地를 이루고 중앙부에 이르러 앞은 二단의 角形과 임을 조출하여 그 위에 中대석을 받고 있다.

中臺石은 中대피임석의 측면과 같이 상·하단에 甲石形을 모각하였으나 각 면에는 隅柱가 표시되지 않았으며 眼象을 一區씩 음각하고 그 내면에 供養飛天像과 菩薩坐像등을 조각하였는데 여기의 眼象은 細長 혹은 橫長한 通式이 아니라 外변에만 括弧形이 있는 方形에 가까운 眼象이다.

上臺石은 上面에 높고 낮은 二단의 角形받침을 조출하였고 측면에는 仰蓮을 조각하였는데 이 蓮華紋은 複葉을 一列에 十六瓣씩 三重으로 배

열한 것이다. 각 瓣內에는 아무런 장식문양도 없으나 全面에 도합 四八瓣의 仰蓮이 조식되어 있으므로 마치 연꽃이 피어오르듯 매우 화사한 變化를 이루고 있다.

八각의 塔身과 임석은 別石으로 조성하여 없었는데 下端部에 높직한 二단의 角形과 임을 각출하였고 上端에도 높직한 甲石形과 附椽으로 볼 수 있는 받침 一단이 모각되어서 상·하대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각 隅角에는 三珠를 연결한 柱形을 세워서 각 측면을 깊숙히 이루고 있으며 그 곳에 通式의 眼象을 一區씩 음각하였는데 그 내면에는 아무런 조식도 없다. 上면은 蓮華紋을 돌리고 그 위에 또 한단의 角形과 임을 각출하여 塔身을 받고 있다.

탑신석은 각 면에 兩隅柱를 각출하였으며 전·후면에는 門扉形을 모각하고 그 좌·우에 四天王像을 배치하였는데 門扉形에 있어서 상부가 半圓形을 이루고 또한 門扉內에 자물통과 문고리 두개를 양각하였다. 兩隅柱 上부에는 柱頭가 모각되고 柱頭사이에 平昌枋을 짜들렸으며 양쪽 우주사이에는 접시받침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형식은 木造建築의 架構를 구현한 것이라 하겠다.

우개석은 下面의 塔신석위에 놓이는 부분에 높고 낮은 二단의 角形받침을 마련하고 처마부는 넓직한 弧形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飛天像을 조식하였다. 그리고 추녀에 이르면서 椽木을 모각하였으며 추녀는 거의 水平을 이루다가 隅角에 이르러 약간의 曲線을 보이고 있다. 屋蓋 上面은 八면의 合角에 굽직한 隅棟을 두고 낙수면에는 기와끝을 표시하였으며 머기와끝에는 암막새와 수막새기와의 형태를 모각하여 목조건축의 翻案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각 轉角에는 雜像을 배치하였던 흔적으로 突起가 약간씩 남아 있다.

相輪部는 현재 八각의 仰花石과 寶輪, 그리고 球形의 寶珠石만이 차례로 놓여 있다. 仰花石은 下面에 一단의 角形받침이 조출되고 측면에는 각 隅角에 一瓣씩의 單葉 仰蓮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寶輪은 上面에 一단의 和莖을 마련하였고 측면에는 單葉 重瓣을 돌렸는데 瓣內는 모두

별다른 조식이 없다.

이 浮屠의 건립연대는 여러가지 상황과 他例와의 비교에서 普照禪師塔보다는 앞서며, 雙峰寺 激巖禪師塔에 뒤지는 九세기 후반(八六一~八九三)으로 추정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 같다.

雙谿寺浮屠

慶南 河東郡 花開面 雲樹里所在, 寶物第三八〇號, 높이

二·〇五m、統一新羅(憲康王十一年, 八八五)。

상체사 北쪽 「塔峰」山봉우리의 稜線을 七m方形으로 평평히 닦아 二段의 石壇을 築造하고 그 중앙에 浮屠를 건립하였는데 石築 자체의 규모와 형식 그리고 주변위 상황으로 보아 현재의 자리가 원위치고 원형이 잘 보존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부도의 구성은 상·중·하대로 형성된 기단위에 塔身부와 相輪部를 놓았는데 平面이 八角形으로 이른바 八角圓堂型의 형식으로 아담한 부도이다. 기단부는 八角地臺石위에 각 一石씩으로 조성한 상·중·하대가 重積되었는데 地臺는 上面만을 治石하여 측면은 거칠게 보인다. 八角下臺石의 측면은 治石만 하였을 뿐 眼象등 아무런 조식이 없으며 蓮華臺를 이루고 있는데 八角의 각 모서리에 一瓣씩 도합 八瓣의 複葉蓮華紋을 伏蓮으로 조각하였다. 伏蓮臺 上面에는 높직한 괴임대를 마련하여 中臺를 받게 하였다.

中臺石은 八面に 眼象이 一區씩 음각되었을 뿐 이밖에 隅柱등 아무런 조식이 없고 이 眼象의 형태가 주목을 끄는데 古式으로서 括弧의 막음線이 아주 크게 내려져서 眼象의 높이는 거의 中臺石의 높이를 따르고 있다.

上臺石은 下面에 二段의 角形반침이 조출되고 仰蓮臺를 이루었으며 八角의 모서리에 一瓣씩 도합 八瓣의 單葉蓮華紋을 仰蓮으로 조각하여 下臺石의 伏蓮과 對하게 하였는데 그 瓣端은 날카롭지 못하며 流麗한 作風만을 보인다.

塔身의 괴임선은 별도로 一石으로 조성하여 끼워 놓은 것인데 높이가 二二cm

로 높직한 八角臺이다. 이 八角괴임대石은 上面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측면에만 八면에 조식이 있는데 卷雲紋을 여러條씩 굵게 조각하되 빈틈없이 全面에 가득하게 하였다. 이 괴임대 위에 八角의 탑신을 받고 있는데 탑신에는 隅柱形도 없고 아무런 조식이 없다.

屋蓋石도 八角이며 매우 광활한데 下面에 넓직한 받침이 있어 椽木을 의미한 듯하고 탑신 바로 위에 놓이는 下底部에는 낮은 角形반침이 각출되어 있다. 추녀는 直線形으로 隅角에 이르러 약간씩 위로 들려 있으며 각 隅角의 轉角部에는 立狀形의 귀꽃紋이 큼직하게 조각되었다. 屋蓋石 上面에는 굵직한 隅棟形이 八角屋蓋形을 따라 八條가 뻗어 내렸으며 落水面이 平薄하여 추녀끝의 귀꽃과 잘 조화되어 경쾌감을 주고 있다.

屋蓋石 頂上部에는 마치 花紋과도 같은 雲紋을 굵게 조각하였는데 이것은 흔히 屋蓋石 頂上 주위에 조각되는 蓮華紋에 대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相輪部는 이 위에 屋蓋石을 축소한 것 같은 同一한 양식의 寶蓋가 있고 그 頂上에 높직한 竿柱가 표시되었으며 최상부에는 큼직한 寶珠를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相輪部는 모두 一石으로 조성하였다.

이 浮屠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리 장식적인 기교는 보이지 않고 있어 우수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각 부재의 大小 비례에서도 균형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부 조각에서 형식화의 과정이 뚜렷하며 각 부분의 조식이 간소하여 전조년대의 降下를 면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이 부도를 이곳의 眞鑑禪師의 墓塔인 「大空塔」으로 比定하여 전조년대를 신라 憲康王六年(十一)년(八八〇)~八八五)代로 추정하는 下限인 八八五年代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禪林院址浮屠

江原 襄陽郡 西面 黃耳里所在, 寶物第四四七號, 높이

(기단부) 一·二m、統一新羅(定康王元年, 八八六)。

일제침략기에 완전파손된 것을 一九六五年度 十一月에 各部材를 수습하여 현재의 자리에 復原하였는데 原位置는 뒷山중턱으로 五〇m쯤을 拉가야 한다.

浮屠의 形式은 地臺石 위에 하·중·상대로 형성된 基壇部를, 그 위에 塔身部 屋蓋石 相輪部를 차례로 놓았던 것인데 현재는 기단부까지 만완전히 남아 있다.

기단부까지는 方形의 地臺石과 그 위 下臺의 八角측면석이 同一石으로 조성되어 二매로 結構된 위에 一石으로 된 下臺 伏蓮石이 놓였으며 그 위에 中臺와 上臺石은 同一石으로 조성되었다. 地臺石은 地上에 노출되는 부분만을 治石하고 그 이하는 거칠은 그대로이며 上面은 평평하게 잘 다듬었다.

下臺 측면石은 下端部에 角形의 낮은 괴임이 刻出되었고 上端에는 두툽한 甲石形이 模刻되었다. 八角의 측면에는 각기 眼象이 一區씩 장식되었으며 측면석의 높이가 낮아서 細長한데 신라시대 石造物의 下臺 측면石 眼象은 모두 이렇듯 細長하다. 眼象內에는 교대로 獅子像을 한쌍씩 양각하였으므로 獅子가 조각된 眼象이 도합 四區가 되고 나머지 四區의 眼象內는 문양이 없다. 獅子像의 모습은 각면이 各樣各態로 下臺 측면石의 장식으로서 가장 변화있는 유희적인 獅子들을 조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八角측면石 위에 놓인 것이 蓮華臺石인데 蓮華臺는 平面이 圓形이며 그 上面에 中臺石을 받는 八角의 괴임대가 마련되어 있다. 蓮華는 伏蓮으로 複葉八瓣이며 그 밑의 八角측면石 각 모서리에 反轉한 瓣端의 중심이 맞도록 一瓣씩 배치하였는데 蓮瓣은 廣大한 편이다. 괴임대는 측면석과 평행된 八角으로 이루어졌으며 낮은 角形과 높은 圓弧의 괴임이 模刻된 위에 反轉과 甲石形으로 이루어진 높직한 또 하나의 괴임이 각출되어서 마치 별개의 괴임石을 만들어 끼운 듯한 느낌을 가진 정도로 높은 괴임대를 이루고 있다.

中臺石은 높직한 竿柱形으로 이루어진 圓形으로서 표면에는 雲龍이 雄健하게 조각되었다. 즉 거의 圓刻에 가까울 정도로 레리-프가 강한 龍頭는 부리부리한 눈과 큼직한 입 코 流麗한 細髮, 특히 윗입술에 불어 위로 길게 올려내민 혀바닥 등으로 생동하듯 웅장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胴體에는 비늘이 전신을 싸고 있어서 이러한 寫實的인 표현은 생동적인 龍頭와 잘 어울리고 있으며 꿈틀거리는 間地에는 太彫의 卷雲紋이 빈틈없이 장식되어서 그야말로 雲上界에 승천하는 雲龍의 장엄한 자태라 하겠다. 이러한 雲龍이 中臺표면에 三體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一쌍은 사이에 雲紋을 두고 서로 對하고 있으며 一體는 뒷편에서 앞쪽의 龍을 따라 方向을 취하고 있다. 雲龍은 모두 측면상이므로 頭部의 웅진함과 寫實的인 龍鱗이 잘 표현되었고 間地마다 雲紋이 가득히 조각되어서 장중하기 이를데 없는 下臺를 이루고 있다.

上臺石은 中臺와 同一石으로 中臺石 上端部에 붙여서 조성하였으며 圓形의 平面을 이루고 있는데 측면은 八瓣의 仰蓮으로 장식되고 上面에는 낮은 괴임과 塔身을 받기 위한 높직한 괴임대가 마련되어 있다. 上面의 괴임은 二種이 조각되었는데 바우선 上面에 上臺의 周緣을 따라 圓形으로 낮은 二段의 角形괴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위에 높직한 塔身괴임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塔身괴임은 上面중앙에 八角으로 마련되었는데 下端에 細微한 괴임이 있고 그 위 높게 反轉된 위에 甲石形의 높직한 괴임대가 있으며 그 上面에 또 한 段의 낮은 角形괴임이 조각되어 그 위에 塔신을 奉安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마치 下臺石 上面에 마련된 中臺石 괴임대와 같은 형식인바 그러므로 이 塔신부 괴임대도 별도로 만든 괴임石을 끼운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도는 특히 中臺石에 雲龍紋이 처음 보이는 것으로 화사한 장식 意匠에서 이루어진 조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아 통일성대에서는 벗어난 위축된 작풍을 느끼게 하고 있으니 九세기에 이르러 建造한 신라下代의 浮屠임을 우선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도를 이곳 弘覺禪師塔으로 比定할 때 전립연대는 신라 定康王 元年(八八六)으로 추정된다.

實相寺 秀澈和尚楞伽寶月塔

全北 南原郡 山內面 立石里所在, 寶物第三三號, 높이 二·四二m, 統一新羅(眞聖女王七年, 八九三)。

實相寺의 第二祖師인 秀澈和尚의 浮屠로 極樂殿 西편에 건립되어 있
는바 현재가 原位置이다.

新羅典型인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삼고 높직한 八角地臺石위에 건립
되어 있다. 지대석 위에는 괴임단 등 아드런 시설도 없이 기단부를 놓
고 있으며 기단은 상·중·하대석으로 이루어졌다.

八角下臺石은 下端에 높직한 甲石形을 돌리고 측면에는 그 周緣을 따
라 雲紋을 조각하였으며 各 면에 雲龍 혹은 獅子像을 양각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下臺石은 이 八角臺石으로 一 단이며 이 위에 八角으로 조
성된 中臺괴임대石이 놓여져 中臺石을 받고 있다.

中臺괴임대石은 別石으로 만들었는데 상·하단으로 이루어진 높직한 台
石이어서 후시 이것을 下臺石部材로 보아 下臺를 상·하 二 단으로 구성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괴임대石은 조성형식이나 그 규
모로 보아 中臺 괴임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中臺石은 얇고 좁은 八角石材이나 各 면에 신라 通式의 眼象을 음각하
고 그 내면에 蓮座上의 舍利盒 또는 奏樂像 등 여러가지 조각으로 화사
한 中臺를 이루고 있다.

上臺石은 하면에 八角으로 三 단의 角形반침을 각출하였고 측면에는
單葉의 仰蓮을 三重으로 조각하되 一列에 十六瓣씩 들렸는데 瓣內에 아
무런 조각이 없으나 도합 四八瓣의 蓮華紋이 寫實的으로 조각되어 화려
한 느낌을 준다. 상면에는 별다른 조각이 없고 二 단의 角形괴임을 각
출한 위에 塔身괴임석을 받고 있다.

八角의 塔身괴임臺는 別石으로 조성하였는데 낮은 측면에는 各 면에
一區씩의 細長한 眼象이 있고 上端의 甲石形에는 角形으로 큼직한 반침
을 각출하여 마치 附椽의 형식으로 보인다. 탑신은 八角 各 면에 兩
隅柱가 각출되고 전·후면에는 門扉形이 조각되었으며 그 좌·우면에
四天王像을 양각하였다.

屋蓋石은 전체적으로 평박한데 하면에는 탑신석위에 놓이는 부분에
一 단의 角形반침이 있고 처마부분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飛天像을 조

식하였으며 또한 그 밖으로는 角形의 椽木을 조각하였다. 옥개상면은
八面の 合角에 굽은 隅棟을 표시하고 낙수면에는 기와끝을 나타내었으
며 추녀에 이르러는 수막새와 암막새기와의 모각으로서 막음을 하였다.
추녀는 거의 수평이나 各 轉角에 이르면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으
며 轉角에는 귀퉁이 없다. 다만 隅棟끝에 雜像을 圓刻 배치하였던 흔적
이 역력하다.

屋蓋石 정상에는 八角으로 二 단의 角形괴임을 조출하여 相輪部를 받
고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相輪部材는 八角으로 조성된 露盤石 하나밖에
없다. 이것은 通式으로서 표면에는 아무런 조각도 없고 上端의 甲石形
에 附椽이 조각되었을 뿐이다.

이 秀澈和尚塔이 서 있는 옆에는 塔碑가 건립되어 있어서 이 浮屠의
주인공을 비롯하여 이와와 여러 관계내용을 알 수 있으니 이 碑文에 의
하여 이 부도의 건립년대를 신라 眞聖女王 七年(八九三)으로 추정하고
있다.

月光寺圓禪師大寶禪光塔

忠北 堤原郡 寒水面 松界里所在, 現存

部材高 八七cm, 統一新羅(眞聖女王 四年, 八九〇).

月光寺址는 松界里의 松界國民學校에서 東쪽으로 德周寺를 향해 약
五〇〇m 가다가 東北向하여 月岳山으로 一km쯤 올라간 곳인데 현재도
洞民들은 모두 이곳을 月光寺터라고 증언하고 있다.

한편 月光寺址에서는 一九二二년에 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를 서울로
 옮겨 세워 현재 경복궁내에 보물로 지정 보존하고 있는데(보물 제三六〇
호) 현재의 古老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어떤 이는 당시 각부재를
搬出할때 人夫로 일하였다고도 한다.

月光寺址에서 圓朗禪師大寶禪光塔碑를 옮긴 사실은 현재 이 塔碑가
서울 경복궁내에 있으므로 다시 말할 여지가 없으나 塔碑와 함께 수습 보
존되었어야 할 大寶禪光塔, 즉 塔碑의 주인공인 圓朗禪師의 浮屠에 관
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어서 항상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다만 朝鮮古

蹟圖譜四、統一新羅時代(四六三頁 圖一五七二)에 「廢月光寺浮圖殘石(忠北堤川郡月岳山)」이라 하여圖版一枚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이圖譜가 발간된 一九一六년경까지는 현지에 그 部材들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후 이 殘石들이 어떻게 수습되고 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나 전해지는 말들이 없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항상 浮屠에 대해서 궁금하였으며 一九七五년도에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는 모든 상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④ 古蹟圖譜 圖版 이후 六〇년만에 또한번 圖版을 작성한다고 생각하여 깊은 감회마저 느끼기도 하였다.

현재 圓朗禪師의 浮屠는 기단부의 一部 部材만이 남아 있어 흠어져 있는데 一九一六년 당시에도 기단부재만이 남아있는 圖版뿐인 것으로 보아 그 이상의 각 부재는 일찍부터 缺失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당시 古蹟圖譜의 圖版名稱에도 「廢月光寺 浮圖殘石」이라 하여 많은 部材를 잃은 「殘石」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一九一六년 당시의 圖版을 보면 地臺石이 보이고 그 위에 眼象石과 蓮華臺二石이 걸쳐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현지조사에서 혹시 또 다른 部材가 索出될까 하였는데 주변 일대는 물론 松界里 부락·민가에서도 옮겨 놓은 것을 볼 수 없었으며 당시의 「殘石」들도 제자리케 있지 아니 하였으니 이제 이들 部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二枚의 板石으로 이루어진 方形의 地臺石 上面에 八角으로 角形의 眼象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下臺石을 놓았는데 下臺는 眼象으로 이루어진 八角의 眼象에 꼭맞게 놓여 있는데 上·下端은 甲石形의 굽이 둘러졌고 측면石과 蓮華臺石으로 구성하였다. 眼象石은 八角으로서 지대석 상면의 八角의 眼象에 꼭맞게 놓여 있는데 上·下端은 甲石形의 굽이 둘러졌고 각 면에는 一區씩의 細長한 眼象이 조각되었다. 그러나 眼象內에는 아무런 조각도 없다. 이 八角眼象石위에 놓이는 蓮華臺는 伏蓮石으로 큰 직한 復葉 八瓣이 둘러졌으며 각 瓣端에 一座씩의 귀꽃이 장식되었는데 현재 완전한 형태를 보이는 귀꽃紋은 없고 모두 파손되어 불완전한 형태와 흔적만이 남아있다. 上面에는 弧形과 角形의 眼象대를 彫出하여 中臺石을 받게 되어 있는데 中臺가 없으니 어떠한 형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眼象대가 八角임으로 그 위에 놓이는 中臺石도 平面이 八角일 것은 짐작되는 일이다.

中臺石은 缺失되었으나 현재 蓮華臺石一座가 남아 있으므로 이것이 곧 上臺石임을 알 수 있겠다. 上臺石은 下面에 八角으로 角形과 弧形의 받침을 마련하였는데 이것은 下臺 伏蓮石 上面의 中臺石 眼象대와 대칭적인 처리라 하겠다. 측면의 仰蓮은 上·下二列로 큼직한 復葉 八瓣씩을 돌려 重瓣을 이루고 있어 下臺의 伏蓮보다는 훨씬 화사한 蓮華臺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上面은 仰蓮의 瓣端사이를 각 邊으로 하여 八角을 이루는 아주 낮은 眼象一段이 있을뿐 평평하며 이 위에 塔身을 받는 眼象대의 시설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으로 보아 혹시 이 시기에 건조된 다른 浮屠에서 볼 수 있듯이 別石으로 塔身眼象대를 조성하여 上臺위에 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九世紀末葉에 가까운때에 건조된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이나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雙谿寺浮屠등에서는 塔身眼象대를 別石으로 조성하여 끼워 놓았음을 볼 수 있다.

이 浮屠의 주인공인 圓朗禪師에 대해서는 塔碑에 의하여 상세히 알 수 있는바 이 碑文에 따르면 禪師는 신라말기의 名僧으로 唐에 留學한 바 있고 憲康王 九年(八八三)에 六八세를 一期로 入寂하였다. 다음해 二月十日에 北院에 神柩를 모시어 葬禮하였으며 圓朗禪師라 追諡하고 塔號를 大寶禪光이라 하였다. 그리고 微臣(金頌을 말함)에게 명하여 碑讚을 修撰토록 하였으며 塔碑의 건립에 대해서는 碑文 末尾에 「龍紀二年歲次庚戌九月十五日建門下僧眞胤等刻字」

라 있으므로 곧 알 수 있는데 「龍紀二年庚戌」은 신라 眞聖女王 四年(八九〇)에 해당한다.

그런데 禪師의 永訣에 대해서는 憲康王 十年(八八四)이라 밝혔고 또 塔碑의 堅碑도 眞聖女王 四年(八九〇)임을 명시하였는데 禪師의 浮屠에 관해서는 塔號를 「大寶禪光」이라 하였다는 것 뿐으로 건조연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碑文의 내용이나 當代에 건조된 여러 浮屠의 造成 상황등을

살펴서 이곳 부도의 건립을 생각해 볼 때 늦어도 塔碑가 건립될 때까지는 「大寶禪光塔」이라는 塔號가 정해진 禪師의 부도가 건조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됨에서 이 부도의 건조연대는 上限을 憲康王十年(八八四)、下限은 眞聖女王四年(八九〇)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基壇部에 있어서 方形의 地臺石 上面에 八角의 庇임대를 彫出하고 八角下臺眼象石을 받고 있는 형식은 憲康王九年(八八三)에 건립된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에서 볼 수 있으나 이 智證大師塔은 眼象內에 獅子를 조각하고 또 그 위도 伏蓮石이 아니고 雲紋으로 장식하고 있어 圓朗禪師塔 下臺의 처리와는 좀 다른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聖住寺址朗慧和尚浮屠에서는 下臺 측면石의 八角 各面에 一區씩의 眼象이 있으나 그 안에는 아무런 조각이 없으며 그 위에는 伏蓮石을 놓고 그 上面에 庇임대를 마련하여 中臺石을 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朗慧和尚塔이 眞聖女王四年(八九〇)에 建造된 것으로서 圓朗禪師의 大寶禪光塔 건조연대의 下限을 잡은 眞聖女王四年(八九〇)과 같은 연대임을 알겠다. 이것은 이곳 圓朗禪師塔의 건조연대를 추정함에 있어 보다 절대연대의 추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주목되는 일로 좋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遺品이라 하겠다.

이상 몇가지言及하였는데 현재 月光寺址는 황폐되고 浮屠도 완전히 못한 基壇部材 몇개 뿐이다. 그러나 이 部材의 各부 양식과 수법은 조성연대가 확실시되는 유물이어서 또 하나의 基準年代를 잡게하는 貴重함을 느끼게 한다. 더우기 오늘날 신라부도가 아주 적은데 비록 部材 몇石이라 하여도 신라부도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는 또 하나의 遺例라 하겠다.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

忠南 保寧郡 帽山面 聖住里所在、復原
高約二·五m 추정、統一新羅(眞聖女王四年、八九〇)。

聖住寺址는 신라 禪門九山の 하나로 주목 되는바 더우기 이곳에는 유명한 四山碑의 하나인 崔致遠撰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국보 제八호)가

남아있으며 그 중심부에는 金堂址앞에 五層石塔 一基(보물 제一九호)와 그 뒷편에 규모가 거의 같은 三層石塔 三基가 건립되어 있어 그 중 兩基(中央과 西)는 또한 보물(제二〇호와 제四七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하여 종전에는 이 朗慧碑에 대한 白月葆光塔의 추정이 金堂 뒷편에 東西로 건립되어 있는 三層石塔 三基와의 關係에서 그 중의 어느 것이 朗慧塔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一九六八年 一〇월에 실시한 黃壽永博士의 현지조사에 의하여 朗慧和尚의 浮屠材가 새로이 발견 조사되므로 이제까지의 추정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⑤

「崇巖山聖住寺事蹟」에 따르면 「大朗慧和尚白月光塔安于西麓」이라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곳은 寺址西方(국민학교 西쪽 浮屠谷)으로서 山기슭에서 올라간 一支脈의 中腹 밑 臺地위가 이 浮屠의 位置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主人없는 古塚 一基가 자리잡고 있으니 이것은 廢寺後 浮屠가 차지한 이 자리를 탐낸자가 있어 浮屠를 제거하고(約百年前後)設墓하였던 것이며 그後 浮屠材는 四方으로 흩어지고 혹은 石工의 주목하는 바 되어서 石臼 등으로 轉用 破損되었던 것이니 이같은 事例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이 八角浮屠가 자리잡았던 넓이 약 六〇坪의 이 장소는 海拔約百m의 高地로서 聖住山 西嶺에서 東南으로 뻗어내린 一支脈인데 四神相應의 景勝의 땅임을 곧 알 수 있다.

이 浮屠는 新羅下代 禪宗의 유행을 따라서 祖師浮屠로 建立된 八角圓堂型의 하나로 볼 수가 있다.

聖住寺는 신라 文聖王 때(八五〇年代)에 開闢되었다. 그리고 創建祖師인 朗慧和尚은 그 후 約四〇年이 지나 眞聖女王二年(八八八)에 入寂하였으며 그의 浮屠인 白月葆光塔은 다시 二年이 지난 眞聖女王四年(八九〇)에 建立되었던 사실을 「越二年 攻石封層冢」이라 한 朗慧碑文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朗慧浮屠인 白月葆光塔의 造成과 그 年代를 알 수 있는바 이곳 寺址西쪽의 浮屠谷에서 수습된 이들 破材는 그 形態와 조각에서

신라 下代인 九世紀末에 해당되며 따라서 碑文이나 「事蹟」에 의하여 聖住寺 初代祖師인 朗慧浮屠가 틀림없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에 있어서 신라 禪門 九山인 南原 實相寺의 洪涉浮屠, 谷城 泰安寺의 惠哲浮屠, 長興 寶林寺의 普照浮屠, 昌原 鳳林寺의 眞鏡浮屠, 開慶 鳳岩寺의 智證浮屠 등 九山創建祖師의 그것이 하나의 例外없이 모두 八角圓堂型을 따르고 있는 時代의 流行과 양식 또한 이곳에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 浮屠材를 下部로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地臺石은 八角으로서 一枚石인데 이 밑의 地臺石은 안 보인다. 四面의 眼象은 金堂佛座의 것과 약간 틀리나 같은 양식의 것으로 보인다.

下臺蓮華臺石은 모두 十二枚의 破片으로 조각되었는데 地臺石위에 놓이는 一枚의 下臺石으로 추정된다. 蓮華紋은 複蓮十六瓣으로서 金堂佛座의 蓮華紋과 같은 양식이며 조각수법이 비슷하다. 上面에는 數段받침위에 中臺石을 받기 위한 八角臺가 마련되었다. 八角 조각 모서리마다 귀퉁이의 꽃문양이 마련되었는데 현재 오직 一角만이 거의 완전한 형태를 남기고 있다.

上臺蓮華臺石은 八角一石의 완전한 것으로서 쓰러져 묻혀져 있었다. 十六瓣仰蓮의 單瓣紋인데 下面에는 中臺石上面위에 놓였던 角形과 四分圓弧의 물딩이 있으며 上面에는 또한 塔身을 받기 위한 三段의 괴임이 마련되었다.

屋蓋石은 세 조각의 八角形頂上部로서 끝부분이 모두 缺失되었다. 頂部를 들어서 單瓣伏蓮이 조각된 것은 通例를 따르는 수법이다.

塔身은 현재 연자방아의 身部一石을 이루고 圓形인데 八角의 原形을 전혀 남기고 있지는 않다. 기타 相輪이나 竿石은 찾을 수 없다.

望海寺址石造浮屠

慶南 蔚州郡 靑良面 栗里所在, 寶物第一七三號

높이 東부도三、四m、西부도三、三m、統一新羅。

望海寺 法堂의 北쪽 五〇m쯤에 南向하여 長大한 石築을 마련하고 그 위에 넓직한 臺地를 整地하여 東·西로 二基를 進조하였는데 일제침략

기에 倒壞되었던 것을 一九六〇年 十一月에 현재대로 復原한 것이다.

兩浮屠는 建造樣式이나 各부의 조각수법에 있어서 같으며 전체 규모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크기이다. 다만 현상태에 있어서 西쪽부도는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破痕이 없으나 東쪽 부도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各부에 磨損이 많고 특히 塔身과 屋蓋石이 크게 파손되었다.

二基中 보다 완전한 상대의 부도를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되어서 여기에 서쪽 부도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자체의 各부양식과 조성수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부도는 典型的인 신라 석조부도의 양식인 八角圓堂型을 따르고 있다. 여러장의 높직한 長方形板石을 結構하여 方形 地臺石을 마련하고 그 위에 基壇部를 구성하였다.

基壇部는 平面八角이며 상·중·하대석으로 이루어졌는데 상·중대는 一石씩이나 下臺만은 二石을 겹쳐 놓았다. 즉 下臺는 밑에 八角의 臺石을 놓고 그 위에 蓮華臺石을 올려 놓았는데 이 八角臺石의 측면에는 八面마다 下端에 얇은 角形의 窟形을 각출하고 上端에는 甲石形을 조각하였으며 그 중간에는 全面에 딱 차도록 細長한 眼象을 一區씩 얇게 조각하였다. 蓮華臺石은 八角을 아래의 眼象石 八角에 맞추어 놓고 八瓣의 伏蓮을 조각하였는데 複葉으로서 瓣端의 중심이 각 모서리에 맞도록 배치하였으며 바로 그 중심에는 양쪽 瓣端으로부터 올려진 交叉리紋三山形의 귀꽃이 조식되어 있다. 中臺石은 낮은 편으로 八面에 兩隅柱가 조각되었을 뿐 아무런 조식이 없다.

上臺石은 下面에 下臺石 上面의 괴임단들과 대칭적으로 八角形의 角形 받침단을 각출하였다. 上臺 측면에는 單葉의 仰蓮이 조각되었는바 상·하에 十六瓣씩 二重으로 조식하여 화사한 蓮華臺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上臺石 上面에는 四分圓의 괴임을 조각하여 그 위에 八角의 塔身과 괴임을 올려놓았다. 塔身과 괴임석은 別石으로 조성하였는데 下端에 一段의 窟形을 돌리고 上端에는 큰직한 甲石形을 조각하였으며 그 중간에는 全面에 딱 차도록 細長한 형식의 眼象 一區씩을 각 면에 얇게 조

각하였는 바 이러한 형태는 마치 基壇部 下臺石 측면 眼象石과도 같고 하겠다. 괴임석상면에는 複葉 二四瓣의 伏蓮을 둘러 八角의 탑신석을 받고 있다.

塔身은 각 면에 양쪽 우추가 정연하게 자출되고 상면에는 영창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戶形은 전·후·좌·우의 四면에만 모각되어 있는데 戶形의 上面만은 圓弧의 外線을 보이고 있다.

屋蓋石은 平面 八角으로 그 밑의 각부재와 같은 평면이어서 이 부도가 八角圓堂型의 기본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곧 알게 한다. 옥개석 하면의 깊숙한 下端에 八角형으로 낮은 角形받침을 자출하여 탑신석에 없이는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받침으로부터는 半圓形인데 이것은 이러한 曲線을 그림으로써 椽木을 翻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처마와 추녀는 水平으로 넓은 편이며 直線形은 신라시대 일반형 석탑의 옥개석 추녀와도 같다고 하겠다. 각 轉角에 다소의 反轉이 표현되었으며 轉角의 상·하에 二孔, 그 좌·우 측면에 二孔씩, 각 轉角마다 도합 六孔씩의 작은 圓孔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건립 당시에 풍경 등의 장식을 달았었던 흔적으로 생각된다.

屋蓋石 上面은 頂上部에 八角형으로 一段의 괴임을 모각하여 相輪部를 받도록 하였으며 이 괴임단의 각 모서리로부터 轉角部에 이르기까지 높직한 隅棟을 이루었으므로 모두 八條의 隅棟이 흐르고 있다. 相輪部는 모두 결실되어 현재 양부도의 옥개석 위에는 아무런 부재도 없으나 파손된 일부가 별도로 보관되어 있다.

이 석조부도는 각부의 구성이나 조각수법에 있어서 다소 纖弱해졌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알개 조각된 眼象이나 伏蓮石의 조각에 있어서 蓮華紋이 廣大하고도 알개 조각되고 있음은 더욱 그러하며 伏蓮瓣端에 귀꽃紋이 나타나고 있음은 신라 부도의 下臺石에서는 새로운 것으로서 주목되는 조식이다. 그러나 귀꽃紋이 신라시대의 석조물에 흔히 쓰여지는 바 이 부도는 八角圓堂의 기본형을 계승하였고 각 부재의 結構에 있어 整齊된 형태를 잃지 않고 있어서 신라하대의 부도로 볼 수

있겠는바 우선 문헌이나 창건설화로 보았을 때 望海寺가 憲康王 때(八七五~八八五) 세워졌다고 하니 혹시 이 부도가 望海寺 創建祖師의 墓塔이라 하여도 이 浮屠의 건립연대는 憲康王代 이전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石南寺浮屠 慶南蔚州郡 上北面 德峴里所在、寶物第三六九號、높

이 三、五三m、統一新羅。

이 浮屠는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삼고 地臺石위에 상·중·하대로 구성된 기단을 놓았으며 그 위에 塔身과 屋蓋石 相輪部를 重積해 놓아 신라시대 일반적인 石造浮屠의 형식을 보이고 있다.

基壇部를 받고 있는 地臺石은 一石으로 조성된 八角으로 흔히 여러장으로 結構된 方形의 地臺와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단부 下臺石은 상·하단으로 이루어져 각기 一石씩으로 조성되었으며 똑같이 八角이다. 下段은 측면에 獅子를 양각하되 四면에만 배치하였기 때문에 獅子를 조각한 측면과 아무런 조식도 없는 無紋의 면이 교차로서 각기 四면씩인데 各면의 獅子는 각기 다른 형태의 몸가짐을 보이고 있다.

下段石 上面은 곧게 治石하고 弧形에 가까운 一段의 괴임을 조출하여 一石으로 조성한 上段石을 받고 있는데 上段下面에도 一段의 받침을 자출하여서 下段의 괴임과 대칭되게 하였다. 上段石은 八角의 각 모서리나 측면 할 것 없이 전 측면에 卷雲紋을 양각하였으며 上面에는 周緣을 따라 알개 模刻한 角形괴임이 있고 그 위에 높직한 弧形과 낮은 角形괴임을 刻出하여 中臺石을 받았는데 여기의 弧形괴임은 圓弧와는 달리 角을 죽인 괴임이다.

中臺石은 八角을 이루고 있으나 鼓腹形으로 조성하여서 상·하가 좁아졌다. 각 면에 상·하와 좌·우에서 內面을 향하여 꽃모양이 낮게 솟은 眼象을 一區씩 음각하였으며 각 眼象內에는 중앙에 독립된 四葉花紋이 조각되고 그 좌·우에는 이것을 연결하는 二條의 橫帶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거의 方形에 가까운 眼象의 형태인 것

이다.

上臺石은 一石으로 조성된 八角蓮華臺인데 下面에 一段의 角形받침이 조출되었다. 측면에는 각 모서리에 一瓣씩의 單葉 仰蓮을 조각하고 그 사이사이에 도 겹치게 仰蓮을 一瓣씩 배치하였다. 上緣은 甲石모양을 이루고 上面에는 八角으로 一段의 角形과임을 마련하여 八角塔身石을 받고 있다.

塔身 각 면에는 兩隅柱가 얇게 조각되었고 상·하단에도 隅柱 넓이 만 큼의 線刻이 둘러져서 각 면은 마치 周緣을 따라 額을 짜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전·후면은 다시 長方形의 戶形을 조각하였는데 전면은 자물 통과 문고리가 양각되었으나 후면에는 아무런 조식도 없다. 그리고 前面 門戶 좌·우면에만 神將立像이 배치되었는 바 이 양쪽 神將像은 뚜렷하게 陽刻되었으나 통일성대의 神將 조각과는 달리 體軀나 甲冑 등이 형식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또한 이 석조물의 조성을 降下되는 연대로 추 정케 하고 있다.

屋蓋石은 추녀가 짧고 下面의 탑신석 위에 놓이는 부분에 二段의 角形받침이 조출되었으며 추녀끝을 향해서 角形받침을 중심으로 하여 각 면마다 角形의 椽木이 조각되었다. 옥개석 상면은 落水面이 平薄하게 흐 르고 八면의 合角마다 隅棟이 있는 가운데 기와끝을 표현하였으며 각 隅棟의 轉角部에 형식적인 작은 귀꽃을 조식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파손 되었다.

屋蓋石 頂面은 甲石모양을 이루어 괴임대를 삼고 그 위에 相輪部를 형성하고 있는데 부재는 현재 仰花 寶蓋 寶珠 竿柱 등이 남아 있다.

이 浮屠는 一九六二年 五月에 수리하였는데 해체 당시 基壇部 中臺石 인 鼓腹石 上面 중앙에 一七cm×一〇cm, 길이 七, 五cm의 長方形 舍利孔 이 마련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때는 이미 舍利장치를 도난당한 뒤였다. 이 부도는 전체적으로 보아 시대의 降下를 느낄 수 있으므로 조연대는 신라말에 가까운 九〇〇년경으로 추정된다.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

서울特別市 景福宮內所在, 寶物第三六

二號, 높이 二, 九m, 統一新羅(景明王七年, 九二三).

본래 경상남도 昌原郡 上南面 鳳林里 鳳林寺址에 건립되어 있던 것을 一九一九年 三月에 現位置로 옮긴 것이다. 이 浮屠는 鳳林山門의 開山人 眞鏡大師의 墓塔으로 新羅典型인 八角圓堂型을 기본으로 삼아 기단 위에 塔身部와 屋蓋石, 相輪部를 차례로 올려놓고 있다.

基壇部는 상·중·하대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一石씩이 重積되었다. 八角下臺石의 측면에는 각 면에 兩隅柱를 포함한 長方形의 區間을 마련 하고 그 안에 신라 通式의 眼象을 一區씩 음각하였는바 특히 각 眼象의 下端 중앙에는 地線에서 三山紋이 솟아 올라온 형태를 조식하여 시대적 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中臺石은 平面이 圓形인바 이렇듯 圓形의 中臺를 받기 위하여 괴임대 上段을 圓形으로 조성하고 下段은 그 밑의 下臺石이 八角이어서 여기에 맞추기 위한 수법으로 圓形 下段괴임대에 八隅角의 圓形花紋을 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扁球形으로 이루어진 中臺石 측면에는 四方에 一區씩의 眼象을 음각하였는데 그 형태는 通式이 아니다. 즉 四角의 모(角)를 없이하여 弧形으로 표시한 長方形眼象으로 좌·우에서 花形이 斗出된 扁직인 形式이며 그 內面의 중심에 花瓣이 중첩된 四葉紋 一座를 조식 한 다음 이 花形紋을 좌·우의 花紋에 연결하는 二條의 橫帶를 양각하 였다. 그러므로 이 中臺石은 扁球形인 점과 그리고 측면에 둘러진 橫帶 로 말미암아 覆鉢과도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上臺石은 圓形인바 下面에는 八각으로 三단의 角形받침을 조출하였 다. 측면에는 單葉 八瓣의 仰蓮을 조각되 하면의 八角 받침대 隅角에 맞게 一瓣씩 배치하였는데 각 蓮瓣內에는 화사한 花紋을 섬세하게 장식 하였다.

탑신은 신라시대의 典型인 八角圓堂을 이루고 각 면에 兩隅柱를 表出 하였으며 상·하단을 마무리하여 마치 長方形額을 마련한 듯 할뿐아 무런 조식도 없다. 옥개석은 八각으로 조성되어 하면에 屋蓋받침이 조

출되었는데 塔身에 없히는 下段은 낮은 角形이고 下너쪽으로 받쳐진 上段은 큼직한 圓弧이다. 처마部에는 완만한 곡선으로 그 內面을 治石하여서 마치 帳幕의 윤곽을 완만히 표현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상면은 기와골이 표시되지 않았고 평평하며 各면의 合角에는 굵직한 隅棟形이 조각되었다. 各轉角에 三山形의 귀꽃이 조각되었으며 옥계 정상부에는 八角으로 三단의 角形괴임을 자출하여 相輪部를 받고 있다.

相輪은 各部材가 많이 결실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仰花 一石과 이에 寶珠 一石이 놓여있을 뿐이다.

이 浮屠는 바로 옆에 塔碑가 건립되어 있으므로 浮屠의 주인공, 그 생애, 行蹟 등 여러 관계내용과 浮屠의 건조연대를 알 수 있으니 이에 의하여 景明王 七年(九二三)의 건조로 추정된다.

三、石鐘型 浮屠

통일신라시대에는 八角圓堂型의 重積形式의 浮屠 이외에 또 하나의 樣式이 있으니 곧 通稱하여 石鍾型浮屠라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又玄先生께서는 「浮圖系」에서 그 源流와 名稱을 論하되,

「石鍾이라 함은 石塔의 外樣이 鍾體와 비슷한데서 생긴 것이니 敎理乃至 文理에 출처가 있을 리 없는 것이다. 또 그 양식 자체로 말하면 원래 印度元有의 覆鉢形塔婆에서 변천해 온 것으로 동양에 있어서 다른 어느 형식의 탑보다 이 石鍾形式의 탑과는 인도 原塔의 原意를 傳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石鍾이라 하는 名稱은 고정된 명칭이 아니요 보는 사람의 형식감에 의하여 覆鉢 覆鉢 覆鉢 覆鉢 기타 여러가지로 표현될 수 있으나 朝鮮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이미 石鍾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을 뿐더러 이후 一般이 칭호를 通用하는 까닭에 筆者도 이 칭호를 답습하려는 것이다. 이 형식의 浮圖는 上述한 바와 같이 원래 인도로부터도 生身舍利를 封置하기 위한 塔 즉 墓塔으로서 발전된 것인즉 釋迦의 遺教를 守奉튼 僧俗의 舍利를 封置하여서 墓塔으로 利用함에 不可함이 없는

것이다。」라 하였다.

즉 石鍾形浮屠는 印度의 覆鉢塔에서 유래되었고 用語는 그 外樣이 鍾體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敎理나 文獻에서의 言及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石鍾形의 浮屠는 주로 고려말기 이후 조선왕조 全時代를 통하여 가장 많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체는 新羅下代와 高麗初半期에도 建造된 實例가 남아 있으므로 그 始源은 下限을 통일신라下代인 九世紀로 보아야 할 것인바 경상남도 蔚山市의 太和寺址十二支像浮屠는 그 표면에 조각한 十二支生肖의 형태나 手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建造物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신라시대의 石鍾型浮屠로는 오직 이 太和寺址十二支像浮屠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遺例와 樣式的인 비교 고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형태가 인도의 覆鉢形塔婆에 淵源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할 것이고 地域的으로 보아 당시 신라서울(慶州)의 관문인 蔚山에서 이러한 實例가 발견되었음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다.

太和寺址十二支像浮屠 慶南 蔚山市 鶴城洞所在, 寶物第四四一號,

높이 一、一m, 統一新羅。

一九六二年 이 浮屠가 발견된 太和里 일대는 신라 善德女王代(六三二~六四六)에 慈藏律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太和寺址로서 洞名도 이 太和寺라는 寺名에 유래된 것이다. 이 부도의 구성은 長方形 臺石과 그 중앙에 안치된 鍾形塔身部의 各一石으로서 아주 간단하다. 현재 臺石後面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그 殘片은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은 발굴당초부터 그러하였다.

全部材가 花崗岩으로 조성되었으며 各面의 治石은 부드러운 편이다. 臺石은 前面에 三區의 眼象을 음각하고 좌·우 측면에는 二區씩의 眼象이며 後面에는 眼象이 없는데 眼象의 형태는 細長한 편으로 알계 조각한 線은 流麗하지 못하다. 臺石上面은 平垣할 뿐 아무런 조각이나

피임대도 없이 塔身部를 받고 있다.

塔身은 全高 一一〇cm, 下徑 九〇cm로서 最下端에 이르러 약간 좁아졌을 뿐 거의 수직의 身部를 이루었으며 중간이하의 표면에 十二支像을 조각하였다. 그리고 중간부 이상은 차차 완만한 곡선을 지으면서 半球形을 이루고 頂上에는 작은 突起를 남기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마치 寶珠形 光背의 上部 곡선과도 같다. 그리고 塔身 南面 중앙의 상부에 龕室이 개설되어 높이 二九cm, 넓이 二八cm, 깊이 二七cm 크기로 거의 方形에 가깝게 만들어졌는데 그 上緣은 曲面을 이루었고 內底가 다소 안으로 경사되었으며 龕室입구의 外周에 돌려 한줄의 홈을 파놓았으니 이것은 排水를 위한 배려라 하겠다. 이 龕室에 있어서 형태에 특이한 점은 없으나 그 위치는 표면 下部에 둘러진 十二支像과 함께 이 부도의 특징이라 하겠다. 즉 이 부도에 있어서 舍利孔은 바로 이 龕室일 것으로 이곳에 舍利具가 장치되었을 것인바 이러한 위치의 舍利공시설은 후대에 건조된 같은 계통의 부도가 모두 臺石중앙과 塔身下底面에 舍利공을 마련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점으로서 이와 같은 龕形 舍利공은 우리나라 石鐘形부도에서 처음보는 형식이라 하겠다.

이 부도명을 十二支像부도라 칭한 것은 바로 十二支生肖를 表面에 돌려 조각하였기 때문인데 이 十二支像은 모두 立像이다. 南北線上을 따라 午像을 남쪽 龕室 밑에 조각하고 子像을 북쪽에 배치하여 이 兩像사이 양측에 각 五像씩을 거의 같은 간격으로 조각하였다. 各像의 형태는 獸首人身像으로서 身長과 直立의 자세는 모두 同一한데 다만 작은 頭部와 긴 手足의 방향과 위치가 서로 다를 뿐이다. 上半身은 裸形이며 下半身에는 薄衣를 두르고 있는데 이것도 양쪽다리 下部가 잡자가늘어져서 이같이 판별된다. 이들은 平服으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양쪽손에 持物이 있는 것은 三像뿐이고 다른 여러像은 合掌 또는 內外로 양쪽팔을 屈伸하고 있다.

이 같은 石鐘形부도의 源流는 물론 인도의 「스투파」에 있는 것이며 이 같은 覆鉢形 塔婆에 관한 知見이 우리나라에 전래한 시기는 매우 오래

된 것으로 생각되어 불교가 들어오고 求法僧들의 해외내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의 遺例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이 太和寺址 十二支像부도를 그 始源의 인 石製造型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부도의 조성연대는 각부 자체의 조성양식과 조각수법에서 신라시대인 九세기 末로 추정할 수 있겠다. 그동안 이 부도는 釜山の 慶南道 廳에 옮겨졌다가 현재는 蔚山市 鶴城公園에 移建해 놓았다.

이상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八角圓堂型浮屠와 石鐘型浮屠를 살펴 보았는데 이 두가지 形式은 이후 高麗時代에 이르러서도 자기 하나의 祖型이 되어서 全時代를 통하여 두가지 형태의 浮屠가 건조되기에 이른 다. 그러나 이 두 形式에서 主流를 이루었던 것은 역시 八角圓堂型浮屠였음을 부연한다.

〈註〉

- ① 高裕燮: 「浮屠系」 참조, 又玄 高裕燮先生의 遺稿로 未發表 論文인데 현재 東國大學校 博物館에서 수장 보관하고 있다.
- ② 金元龍: 「唐朝의 舍利塔」 考古美術 第四卷 第四號(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六三, 四) 참조.
- ③ 「朝鮮金石總覽」上 P, 一一五 참조.
- ④ 鄭永鎬: 「月岳山月光寺址와 圓朗禪師大寶禪光塔에 대하여」 考古美術 二二九・一三〇(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七六, 六) 참조.
- ⑤ 黃壽永: 「新羅聖住寺 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의 調査」 考古美術 第九卷 第十一號(韓國美術史學會刊, 一九六八, 一一) 참조.



圖1) 鳩摩羅什舍利塔



圖2) 陳田寺址 浮屠



圖3) 廉居和尚塔



圖4) 大安寺 寂忍禪師照輪清淨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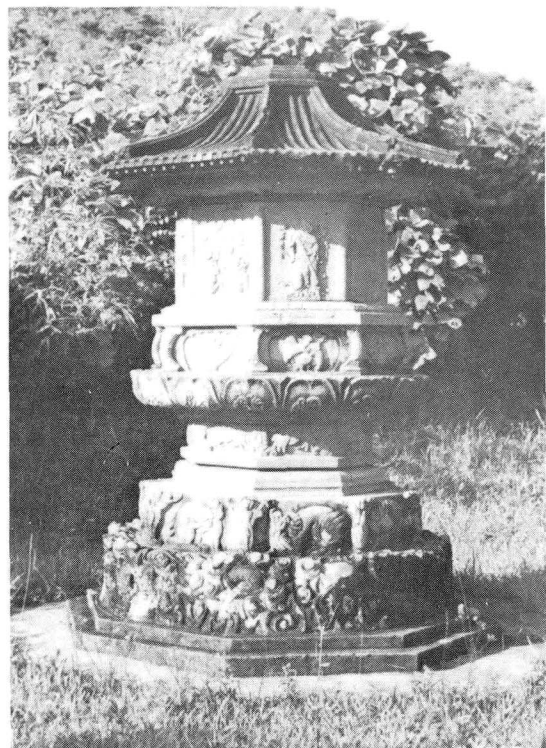


圖5) 雙峰寺 澈鑿禪師塔



圖6) 宝林寺 普照禪師彰聖塔



圖7) 鳳巖寺 智證大師寂照塔



圖8) 實相寺 證覺大師凝寥塔



圖9) 雙谿寺 浮屠



圖10) 禪林院址 浮屠



圖11) 實相寺 秀澈和尚 楞伽宝月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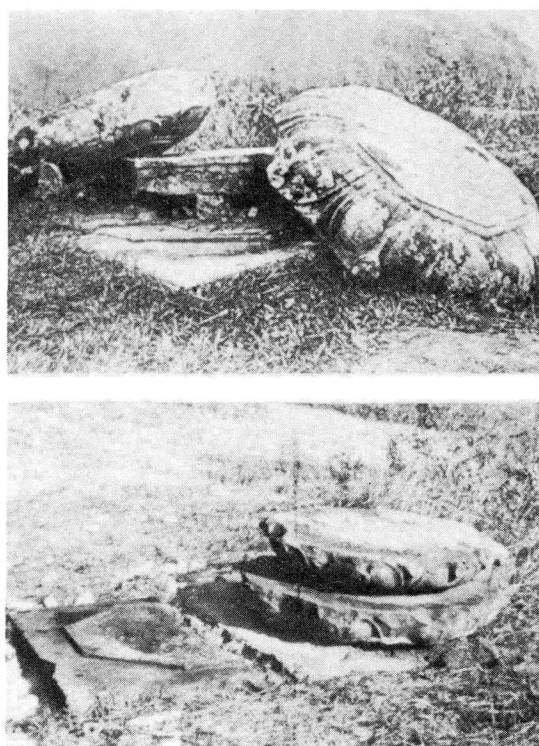


圖12) 月光寺 圓朗禪師大宝禅光塔
上(1916年度) 下(1975年度)



圖 13) 聖住寺 朗慧和尚白月葆光塔



圖 14) 望海寺址 石造浮屠



圖 15) 望海寺址 石造浮屠
피손상황 (1960年度촬영)



圖 16) 石南寺 浮屠



圖 17) 石南寺 浮屠 屋蓋石 相輪部



圖 18) 鳳林寺 眞鏡大師 宝月凌空塔



圖 19) 太和寺址 十二支像 浮屠



圖 20) 太和寺址 十二支像 浮屠